

2금융권 중금리 대출 급증… ‘건전성 관리’ 과제

금융당국 총량관리 인센티브 확대
신용 50% 이하 중·저신용자 대상
금리 5.9~15.27% 생활안정대출
한도조치 승인율 98%→99% 확대

2금융권을 중심으로 중저신용자들의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가계대출 규제 기조 속 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에 총량 관리 인센티브를 확대하면서 저축은행에 이어 캐피탈사들도 공급 확대에 나서는 모습이다. 대출길이 좁아진 중저신용자들에게 새로운 자금줄이 열렸지만, 단기간에 수요가 몰리면서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가 숙제로 남았다.

27일 대출 중개 플랫폼 핀다에 따르면 최근(지난달 27일~이달 23일) 진행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한도 조회 건수는 총 1만1806건에 달한다.

주별로 살펴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 사이의 한도 조회 건수가 3586건으로 가장 높았다.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이 본격적으로 출시되기 시작한 지난 6월 이후 역대 최대치다.



서울 시내 2금융권 지점의 대출 창구 안내 이미지. /뉴시스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은 중·저신용자 전용 금융 상품이다.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고객이 대출 대상이며 금리는 연 5.9%~15.27% 사이에서 형성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 대출 기간은 최장 120개월이다.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한도 조회 승인율이 높아져서다. 실제 지난달 98%였던 한도 조회 승인율이 이달에는 99%에 달했다. 중금리대출 한도를 조회한 고객 100명 중 99명 필로 대출 가능한 한도가 나오고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 대출과 같은 상품은 승인율이 높게 나오지 않는 데 반해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한도 승인율이 높게 나오고 있다”면서 “한도 승인율이 높아지면서 조회수와 직결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2금융권은 중금리대출 상품을 더 확대하는 분위기다. 이달부터 금융당국이 2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증가분을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100%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지금까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는 각 80%, 40% 예외 비율을 적용

받아 왔다.

실제 다올저축은행은 지난달 ‘다올중금리생활안정대출’을 출시했다. 최근에는 NH저축은행이 중·저신용자 19세 미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을 내놨다.

저축은행에 이어 카드사와 캐피탈사도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출시 행렬에 뛰어든다. 올해 하반기 카드사와 캐피탈사는 정책 보증부 상품인 ‘사잇돌대출Ⅱ’ 상품을 선보인다.

다만, 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가 숙제다. 가계대출 총량에서 중금리대출 증가분이 제외되면서 대출 영업 확대가 가능해졌으나 대출 상품이 중저신용자 전용 상품인 만큼 연체율 문제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것과 동시에 건전성을 관리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업권이 고민하는 딜레마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metro

보험사 ‘투자손익 개선’ 상반기 순익 9조… 전년비 13% ↑

생보사 순익 3.9조로 17.7% 증가
손보사 9.6% 늘어 5조884억 기록

투자손익 등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국내 22개 생명보험사와 30개 손해보험사의 총 당기순이익은 9조13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13% (1조366억원) 증가했다.

생보사 순이익은 3조9254억원으로 같은 기간 17.7% (5892억원) 증가했다. 이자·배당수익과 금융자산 처분·평가이익 등으로 투자손익이 개선된 영향이다. 다만 손실부담비용과 예상차손실 등의 영향으로 보험손익은 악화됐다.

손보사 순이익은 9.6% (4474억원) 늘어

〈보험사 주요 손익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5.상반기(A)	'26.상반기(B)	증감(C=B-A)	증감률(C/A)
생명보험회사	당기순이익	33,363	39,254	5,892	17.7
	보험손익	26,147	19,297	△6,850	△26.2
	투자손익	17,677	26,803	9,126	51.6
손해보험회사	당기순이익	46,410	50,884	4,474	9.6
	보험손익	37,951	43,261	5,310	14.0
	투자손익	25,045	27,601	2,557	10.2
보험회사 당기순이익	영업외손익	△292	△1,003	△712	손실확대
	보험회사 당기순이익	79,773	90,138	10,366	13.0

/자료=금융감독원

난 5조884억원을 기록했다. 금융자산처분·평가의 등으로 인한 투자손익과 함께 손실계약 환입·일반보험 손익증가 등에 따른 보험손익이 함께 개선되면서다.

양 업권 모두 수입보험료가 늘었다. 상반기 보험회사의 총 수입보험료는 134조9348억원으로 8.5% 증가했다. 생명보험

사는 65조2045억원으로 8.4%, 손해보험사는 69조7303억원으로 8.6% 올랐다.

특히 생보사는 보장성보험과 변액보험, 퇴직연금 등의 수입보험료가 증가했다. 반면 저축성보험은 감소했다. 손보사는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 일반보험, 퇴직연금 등 모든 부문에서 수입보험료가

늘었다.

상반기 총자산이익률(ROA)은 1.28%로 0.04%포인트(p) 상승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8.52%로 2.75%p 하락했다.

보험사의 총자산은 1467조9000억원, 총부채는 1213조3000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각각 9.2%, 3.2%씩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은 투자손익 등이 크게 개선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게 됐다”며 “또한, 금리 상승에 따른 금리부자산 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보험부채 감소, 주식 가치 상승 등으로 총자본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중동상황 장기화 등으로 금리·환율·주가 등 시장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어 손익 및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재선 기자

KB손해보험 저소득 어르신 300명 ‘식료품 패키지’ 지원

KB손해보험은 취약계층 어르신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공헌사업 ‘어르신 한달 한상’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국 저소득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식료품 정기배송과 안부 확인을 결합한 돌봄 서비스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만 65세 이상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참여자에게는 6개월 동안 매월 1회 식료품 패키지가 제공된다.

미래에셋생명 지역어르신 방문 봉사

미래에셋생명은 임직원으로 구성된 사랑봉사단이 서울 동작구 재가노인복지기관과 함께 지역 어르신을 위한 방문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일상생활에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재가 어르신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봉사단원들은 어르신 가정을 직접 찾아 준비한 생활물품을 전달하고 건강과 생활 여건을 살피며 안부를 나눴다. 물품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르신 한명 한명과 이야기를 나누며 일상 속 어려움을 살폈다. 지역 복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을 보탰다. 황병욱 미래에셋생명 홍보실장은 “임직원들이 어르신을 직접 찾아뵙고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카드사·여전사 상반기 순익 동반 상승

각각 전년비 5.6%·25.4% 올라
연체율도 상승 건전성 지표 악화

올 상반기 신용카드사와 비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할부금융사·리스사·신기술금융사)의 순이익이 나란히 증가했다. 다만 연체율도 동반 상승하면서 건전성 지표는 다소 악화됐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전업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29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683억원) 증가했다.

총수익은 14조587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 카드 대출 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수수료 수익과 할부카드 수수료 수익이 오른 영향이다. 총비용은 13조2941억원으로 1.4% 올랐다. 대손비용이 감소했으나 카드비용, 판

매 관리비 등이 확대됐다.

연체율은 소폭 상승했다. 카드사 상반기 연체율은 1.54%로 전년 말 대비 0.02%포인트(p) 올랐다. 신용판매채권과 카드대출채권을 합산한 카드채권 연체율은 1.61%로 같은 기간 0.07%p 올랐다. 고장이하야신비용은 1.13%로 전년 말보다 0.02%p 하락했다.

한편, 비카드 여신전문금융사는 당기순이익 2조235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523억원 (25.4%) 증가했다.

총수익 16조4547억원, 총비용은 14조2195억원으로 각각 4.4%, 1.7%씩 올랐다. 총수익은 리스·렌탈·할부 수익 및 유가증권 관련 수익, 신기술금융수익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건전성 지표는 다소 악화됐다.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2.29%로 전년 말 대비 0.18%p 상승했다.

/안재선 기자

도·노·강 중심 서울집값 81주 연속 상승세

부동산원, 전주 대비 0.29% 상승
세제개편안 이후 강남권은 하락세

서울 집값이 8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중랑구를 비롯해 중저가 지역은 상승폭이 크게 확대된 반면 세곡부담에 강남권은 3주 연속 하락했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24일 기준 전주 대비 0.29% 올랐다. 상승폭도 전주(0.22%)보다는 0.07%포인트(p)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일부 단지에서 관망세를 보이며 가격이 조정된 매물로 하락 거래가 나타났지만 교통 여건이 양호하고 선호도가 높은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계약이 포착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랑구와 함께 노도강(노원·도

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의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자치구별로는 중랑구가 0.56%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성북·강북구(0.55%)와 도봉·노원구(0.54%)를 비롯해 성북구(0.55%), 서대문구(0.53%), 강서구(0.50%) 등도 상승률이 0.5%를 웃돌았다.

반면 강남권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초구와 강남구가 한 주간 각각 0.04%, 0.02% 하락했다.

경기는 반도체 배후 지역인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집값이 들쭉이면서 0.23% 올랐다.

수원 영통구가 0.75%나 상승했으며, 용인에서는 수지구와 기흥구가 각각 0.66%, 0.63% 올랐다. 화성시 동탄구의 상승률도 0.54%에 달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